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3

제42권 제1호 통권 47호



齒科

內院病僊蘭富世

齒X口齒

齒列矯正科

義齒一般、繼續架工義齒一般其他諸
般設備完全하야一般施術에應함

齒科部醫師
米國齒科醫學士
日本齒科醫學士

林 澤 龍
제일
뽕

(間時察診)
時九前午自
時四後午至

局本話電院病僊蘭富世府城京
番一二三二部科齒外門大南

동아일보 1923년 1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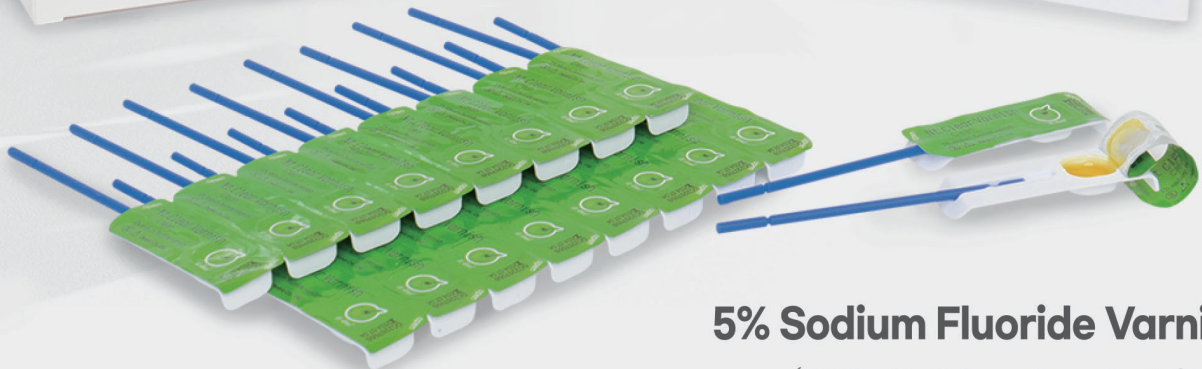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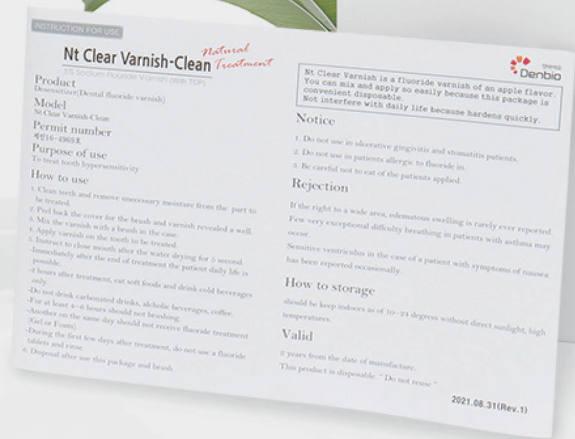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Nt Clear Varnish Clean

천연송진을 주재료로 한 생체친화원료
의료기기 2등급 인증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입증)



Apple Flavor

▶ Contents : 0.4ml x 32입 | 0.4ml x 200입

5% Sodium Fluoride Varnish

- ✓ With Calcium phosphate(TCP)
- ✓ With Tocopherol(Vitamin E)
- ✓ With Xylitol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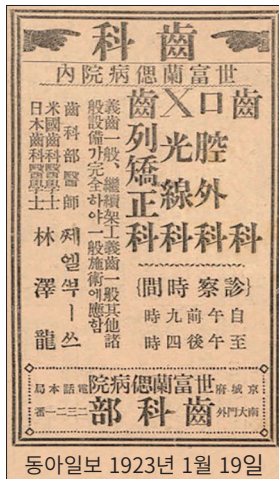
2023

제42권 제1호 통권 47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그림 설명>

임택용(林澤龍, 1895~1985)

임택용은 192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서 치과 주임으로 부츠(Boots)와 함께 근무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서 근무한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다. 다시 말하면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다. 그는 진료뿐만 아니라 부츠와 맥안리스(McAnlis)와 함께 의학전문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학 강의도 하였다. 어쩌면 미국인 선교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더 전달력 있는 치과학 강의를 학생들에게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임택용 이름 석자는 우리나라 치과계에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학회지를 통해서 임택용이 한국 치의학 역사책에 기록되고 기억되었으면 한다.

인사말



대한치과의사학회는 1960년 10월 7일 창립된 이후 올해로 6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치과의사학과 건강보험’이라는 대주제로,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일본 여행, 문화 예술 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 치과 건강보험의 역사와 전만, 건강보험과 관련된 임플란트와 국소의치 보철수복, 임플란트 보철의 교합, 임상 사례로 보는 치과의료분쟁과 의료법 등의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회지는 일본 우키요에 치과명화,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 및 피에르 포샤르의 삶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대한치과의사학회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이해준

목 차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일본 우키요에(Ukiyo-e)	1
권 훈(Kweon, Hoon)	
카자흐스탄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ibalyk) 고고학 발굴	7
이병연(Lee, Andy Byung Yeon)	
피에르 포샤르의 삶(Life of Pierre Fauchard)	13
김태홍(Kim, Taehong)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일본 우키요에(Ukiyo-e)

권 훈

Kweon, Hoon

1. 흑치(黒齒, Teeth blackening)
2. 이쑤시개(Toothpick, Tsumayoji)
3. 칫솔(Tufted toothpick)
4. 치약(Tooth powder)
5. 목상의치(木床義齒, Wooden denture)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일본 우키요에(Ukiyo-e)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본문 필자가 우키요에(Ukiyoe)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2016년 프랑스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생가에서였다(그림 1). 모네의 집 곳곳에 전시된 우키요에를 보면서 왜 프랑스에 일본 전통 그림이 이렇게 많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사실 부러웠다. 그리고 일본인이 실제로 모네의 정원을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 김홍도(1745-1806)와 신윤복(1758-1814)의 풍속화가 우키요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그림의 예술적 가치가 훨씬 더 우수한데 그 당시 서양인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게 아쉽다.

우키요에(Ukiyo-e)에서 우키요(Ukiyo)는 세상이 덧없음을 의미한다. 일본 에도시대에 우키요에는 덧없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의미로 판화형태로 유행한 그림이고,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경, 풍물 등이 표현되어 있다. 우키요에에도 치의학 역사와 관련된 그림이 많이 남아있다. 치과와 관련된 우키요에를 분류하면 발치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나무 틀니(Wooden denture), 칫솔(Fusayoji) 또는 이쭉시개(Tsumayoji)를 사용하는 모습, 칫솔을 파는 가게가 그림에 묘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전통 관습인 흑치(黒齒, Ohaguro)를 하는 과정이 관찰된다.

일본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도자기를 포장한 종이에 우키요에가 그려져 있었다. 우키요에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에게 화두를 던지게 되었고, 많은 화가들이 우키요에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림에도 흔적이 남아있다. 고흐, 모네, 마네, 드가, 로트렉 등이 우키요에에 매료된 화가들이다. 특히 마네는 외곽선은 진하고, 평면적인 판화처럼 우키요에 풍으로 ‘피리부는 소년’을 그렸다(그림 2). 이 그림은 서양에서 최초의 평면적인 그림이다.



그림 1. 2016년 지베르니 정원 모네 생가 안에서.



그림 2.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1866).

일본 Niigata에 있는 Nippon 치과대학 박물관에서 ‘Manners and Customs of Dentistry in Ukiyoe’라는 제목의 도서가 1980년 출판되었다.¹⁾ 책에는 114장의 우키요에 작품과 해설, 그리고 일본 치의학의 역사가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그림 3). 다행히 영어로 출판된 책이라 우키요에에 관한 내용을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원고를 쓸 수 있는 근거다. 본 고에서는 치과와 관련된 역사와 함께 일본 우키요에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흑치(黒齒, Teeth blackening)
2. 이쑤시개(Toothpick, Tsumayoji)
3. 칫솔(Tufted toothpick)
4. 치약(Tooth powder)
5. 목상의치(木床義齒, Wooden den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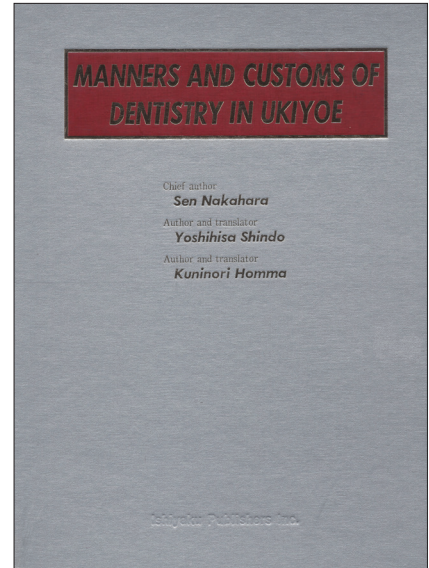


그림 3. Sen Nakahara의 저서 Manners and customs of dentistry in Ukiyoe 표지.

1. 흑치(黒齒, Teeth blackening)

미국 페리 제독이 1853년 일본에 도착했을 때 흑치를 갖고 있는 여성을 보며 매우 놀랐다고 한다.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을 가진 여성이 말을 할 때 드러나는 검게 칠해진 치아를 보면서 기겁했다는 기록도 있다(그림 4).²⁾ 페리 제독과 그의 일행은 작은 마을 대표의 초청을 받아 다과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모노를 입은 맨발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마다 바닥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에 매우 감사하였다. 하지만 그녀들이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흑치에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다 고 한다(그림 5). 서양인에게 검은 색은 악마, 죽음, 불길함과 증오와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 예를 들면 마법사의 망토와 검은 고양이 등은 서양인에게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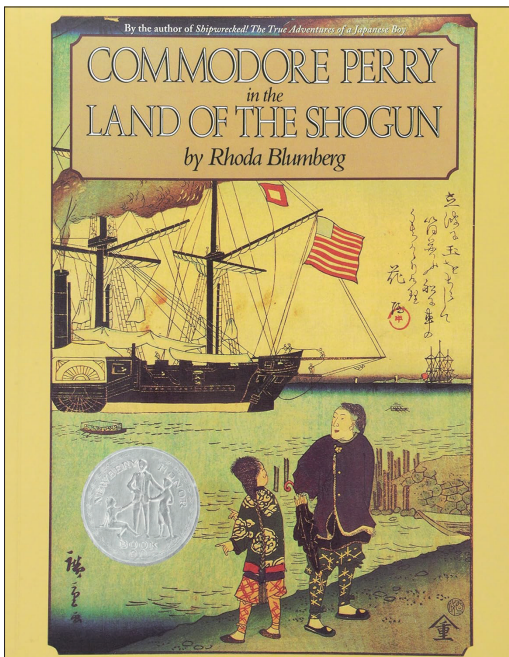


그림 4. Commodore Perry in the land of the Shogun(1985) 책 표지.



그림 5. 흑치를 하고 있는 일본 여성.

일본 여성들은 고대시대부터 관습으로 몸단장의 일부로 흑치(Ohaguro)를 하였고 에도시대부터 대중화가 되었다. 일본 에도시대(1603-1867)에 결혼한 여성은 흑치를 하였고 여행을 갈 때도 흑치를 칠하는 도구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그림 6, 7).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남성에게는 일본식 상투(Chonmage), 여성의 흑치를 금지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전통 관습이 일본의 문명화와 계몽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73년 메이지 천황과 황후가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통의 일본식 상투와 흑치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이러한 전통 관습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흑치를 하는데 사용되는 용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산 철(iron acetate)과 타닌 산(tannic acid)이 혼합되면 검은 색소 물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지금의 흑색 잉크와 같은 성분으로 목면이나 실크의 흑염색에도 사용되었다. 나무 칫솔에 검은 용액을 묻혀 치아를 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치아 표면에 용액을 여러 번 묻혀야 가능했고, 용액이 더 잘 묻도록 석류나무 잎으로 문지르기도 하였다.

흑치가 벗겨져 있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여성의 몸가짐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 기혼 여성들은 검은 용액이 치아 표면에 잘 붙어있는 궁리를 한 끝에 묘안을 생각해 내었다.³⁾ 흑치를 하기 전에 치아 표면을 산성액으로

에칭한 후 검은 용액을 발랐다고 한다. 이러한 용액은 에도 말기에 흑치가 잘 벗겨지지 않는 약으로 판매되었다(그림 8). 병의 라벨에는 흑치를 빠르게 하고, 윤기를 좋게 하고, 오랫동안 벗겨지지 않는다고 광고하였다. 미국에서 치의학학을 공부하고 온 다카야마 기사이는 1881년 자신의 저서 보치신론(保齒新論)에서 흑치를 위한 용액이 강산인 주석산 또는 황산이기에 치아를 손상시킨다고 경고하면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6. 흑치를 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그림 7. Kuniyoshi Utagawa : A textbook of Ohaguro(dyeing teeth black).



그림 8. 흑치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치면에 바르는 산성 용액.

흑치를 할 때 용액을 데워야 하는데 이때 용액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방사되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잠에서 깨기 전인 이른 아침 부엌에서 흑치를 하였다. 흑치 용액은 발효되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부엌 구석에 보관하였다. 또한 타닌 용액이 매우 쓰기 때문에 흑치를 한 여성은 반복적으로 입을 헹궈야 했다. 흑치는 기혼 여성의 일상으로 매일 아침 머리 손질과 세면과 함께 행해졌다. 이것은 매우 귀찮은 일상이었고 단정한 여성은 3일마다 흑치를 했다고 한다.

일본 풍속 목판화 우키요에에 우키요에에 나오는 인물은 주로 여성이다. 일본 전통 공연극 가부키(Kabuki)에 나오는 여성, 요시와라(Yoshiwara)에서 일하는 여성 특히 요시와라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구강 위생을 하는 모습이 우키요에에 자주 묘사되었다. 그 이유는 우키요에 화가들이 요시와라 단골 고객이었고 아침에 일어난 여성들이 단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그림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우키요에 그림들은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잘 팔렸다. 이유는 일반인들 특히 남성들이 요시와라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호기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우키요에 그림을 구입했다고 한다.

최후의 우키요에 화가라고 불리는 츠키오카 요시노(Yoshitoshi Tsukioka, 1839-1892)의 미인화(1888)다(그림 9).⁴⁾ 곧 결혼할 예정인 젊은 여성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치아에 검은 물감을 칠하고 있는데 흑치가 선명하게 보인다. 결혼한 여성의 치아를 검게 하는 것은 옛날의 오랜 관습이었다. 2000년경에 이르러 머리카락 염색을 시작하는 것이 성인의 표시로 인식되었지만 결혼의 상징으로 변경되었다. 신부는 결혼식 밤 전에 처음으로 ‘이를 검게 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흑치는 기혼 여성의 일상으로 매일 아침, 머리 손질과 세면과 함께 행해졌다. 이것은 매우 귀찮은 작업이었지만, 안 하면 추하게 보이기 때문에 차림새가 단정한 여성은 3일마다 손질을 했다고 한다. 검은색은 잘 변하지 않아 두 번째 남편을 두지 않겠다는 각오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즉, 검은 치아는 정절을 의미했다.

1700년 이후에는 창녀들이 이 관습을 채택했다. 여자들은 이를 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은 하얗게(납으로 하얗게), 입술도 붉게(붉은 철로) 칠했다(그림 10). 치아의 흑화는 따뜻한 물과 철분을 기본으로 한 철분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절차를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권장되었으며 칫솔질 시 주의가 권고되었다.

흑치를 한 치아에 충치가 보이지 않자, 흑치에는 충치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그림 11).⁵⁾ 그것은 흑치의 철



그림 9. Tsukioka Yoshitoshi (1839-1892) : At one O'clock in the afternoon(1880).



그림 10. Shunkei : Tooth blackening.



그림 11. Kitagawa Utamaro (1753-1806) : Blackening the teeth(1802-3).

이온이 젖산과 킬레이트 결합하여 산 탈회를 억제한다는 주장이 있다. 흑치 습관에는 치아 우식에 걸리기 쉬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충치를 예방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과 지혜가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원래 흑치에는 악마가 입안에 들어가 치아를 아프게 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다.

2. 이쑤시개(Toothpick, Tsumayoji)

552년 불교가 일본에 전파되면서 승려가 일본에서 toothpick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경전을 읽기 전에 반드시 dental twig로 칫솔질을 하고, tongue scraper로 입안을 청결히 하고, 구강 세정을 하여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일본 문화에서 나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에도 시대 중반부터 toothpick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이쑤시개는 처음에는 대나무로 제작되었다가, 버드나무과의 향기 있는 백양이나 수양이 사용되었다(그림 12).¹⁾ 치간을 닦는데 사용되며, 그 크기 때문에 작은 양지 또는 그 재료 특성 때문에 흑문자라고도 불렸다. 흑문자는 나무 껍질은 원래 녹색이지만, 검은 반점에 덮여 검은색으로 보이는 나무다. 나뭇가지와 잎을 접으면 향기로운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재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장양지라고 불리우며, 보통 20cm 정도의 것을 식후의 과일에 곁들여 주었다. 이것을 절반으로 접어 치아 사이를 청소했다. 사용할 때는 입가를 손으로 가리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다. 100년 전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길이가 되었다.

에도시대에 이쑤시개를 판매하는 전문 가게가 주로 Asakusa Kannon Temple 주변에 생겼다. 요시하라(Yoshiwara) 지역에 있는 사찰에 83개의 이쑤시개 가게가 오픈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가게의 수는 200여개에 달했다. 하루노부 스즈키(Harunobu Suzuki, 1724-1770)는 그의 작품 'Harunobu's beauties'에서 이쑤시개와 칫솔을 판매하는 여성을 미인으로 묘사하였다(그림 13).¹⁾

가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게 주인은 쇼걸을 고용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쇼걸들은 상점의 가판대에 다리를 올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쑤시개 상점이 요시하라 사창가 인근에 밀



그림 12. 여러 유형의 toothpicks.



그림 13. Suzuki Harunobu(1725-1770) : Clearing storm at Asakusa(1764-70).

집되어 있어 그 당시 남자들은 이쭉시개 구입을 핑계로 요시하라를 드나들곤 하였다. 사창가에서 일하는 매춘부가 이쭉시개를 사용하는 우키요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그림 14). 그래서인지 우키요에 화가들은 이쭉시개를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모델로 채택하였다.

에도막부 말기의 삼대 화가의 필두로 거론되는 Utagawa Kunisada(1786-1864)의 그림이다(그림 15).⁶⁾ 허리에 검을 차고, 목에 수건을 두르고, 눈썹은 올라가 있고, 양 눈이 내려가 있는 채로, 입 끝에 이쭉시개를 물고 있는데 이것은 그림의 절반이 삭제된 상태다.



그림 14. Kitagawa Utamaro(1753- 1806)
: Beauty in the northern province.



그림 15. Kunisada Utagawa(1786-1864) : Toothpick.

3. 칫솔(Tufted toothpick)

일본 치의학 박물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우키요에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나무 칫솔로 이를 닦는 모습이다(그림 16).¹⁾ 우키요에에 나오는 인물은 주로 여성이다. 일본 전통 공연극 가부키(Kabuki)에 나오는 여성과 요시와라(Yoshiwara)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구강 위생을 하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었다. 그 이유는 우키요에 화가들이 요시와라 단골 고객이었고, 아침에 일어난 여성들이 단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그림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우키요에는 일반인에게 인기가 많아 잘 팔렸다. 이유는 특히 남성들이 요시와라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호기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우키요에를 구입하였다고 한다.

칫솔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일본어로는 Fusayoji, 영어로는 Tufted tooth pick 일본 에도시대(1603-1867)에 칫솔과 이쭉시개 기능을 동시에 하였다. 한쪽 끝은 이쭉시개로, 다른 끝은 칫솔로 사용되었다. 칫솔은 보통 12cm 정도의 길이의 것이 사용되었지만, 30c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그림 17). 버드나무 가지의 닳고 납작해진 끝부분으로 이를 닦았다. 이 막대기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세로로 잘



그림 16. Kuniyoshi Utagawa(1797-1861) : Eight O'clock in the morning(1821-3)



그림 17. 여러 유형의 toothbrush.



그림 18. Eisen Keisai(1790-1848) :
Tufted toothpick and tooth powder.

라 혀 굽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에도막부 말기의 삼대 화가 중 한 명인 Eisen Keisai(1790-1848)의 미인화다(그림 18).⁷⁾ 밤새도록 일해서 아침에 늦잠을 잔 여성 2명의 모습이다. 오른쪽의 여자는 나팔꽃의 화분을 들고 있고, 맨 얼굴의 왼쪽 여자는 긴 칫솔과 개봉된 치약 봉투를 가지고 있다. 남성 칫솔은 버드나무의 단단한 줄기로, 여성용은 가지 부분이 사용되었다. 여성용이 부드러웠던 것은, 흙치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1896년 Yoshitoshi Tsukioka(1839-1892)의 작품 ‘Tufted Toothpick and Garglimng Bowl’이다(그림 19).⁴⁾ 그녀는 아침 8시, 심란한 머리 그대로, 어깨에 수건을 얹고 손에 찻잔을 들고 방양지로 치아를 닦고 있다. 그릇은 깊고 두꺼운 도자기다. 신선한 물을 그릇에 담아 치약 상자에서 치약을 묻히거나 소금을 묻혀 치아를 닦고 입을 세정하는 전형적인 아침 세면대에서의 모습이다.

치솔을 손으로 잡는 부분은 사각형으로 하고, 잡기 쉽게 하고 있다. 치솔의 대가 약하고 사용하기 어려우면 손가락으로 짧게 잡고 치아를 닦는다. 또 한쪽 끝이 테이퍼나 혀 닦이 치솔로 되어 있어, 혀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 마치 치솔질을 끝낸 것처럼 그녀의 혀 끝이 붉게 물들어 있다. 상단의 그림에는, 저울 붓을 어깨에 멘 아침 먹이의 행상인이 그려져 있고, 글의 내용은 남녀 사이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림 19. Yoshitoshi Tsukioka(1839-1892) : Thirty three manners and customs(1880).

우키요에 판화가인 도요하라 쿠니치카(Toyohara Kunichika, 1835-1900)는 미인화, 당대의 사회상, 풍경, 역사적 장면들이 포함된 작품을 많이 남겼다. 도요하라 역시 알콜 중독에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어 요시와라를 자주 드나들었던 화가였다. Thirty-six Restaurants of Tokyo 우키요에 시리즈 그림 중에 한 장이 일본 여성이 칫솔질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그림 20). 1870년에 그려진 원본이 운 좋게 착한 가격으로 필자의 손에 들어왔다.

전성칠복유(全盛七福遊, 1868)는 에도시대 오치아이 요시키(1833-1904)의 목판 우키요에로 풍자 그림이다(그림 21). 그림에 일곱 가지의 축복이 표현되어 있다. 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띤 부분은 왼쪽에 나무 칫솔로 이를 닦고 있는 배가 나온 아저씨가 보인다. 일본에서는 헤이안(平安) 시대(794-1185)에 접어들어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상류층 즉 귀족, 성직자 및 군 사령관은 tooth twigs을 이용하여 칫솔질을 시작하였다.⁵⁾ 에도(江戸) 시대(1603-1868) 중반까지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되지 않았다. Chew stick의 끝을 나무 망치로 두들겨서 끝부분을 빗처럼 만들어 칫솔로 사용하였다.



그림 20. Toyohara Kunichika(1835-1900) : Series Thirty-six Restaurants of Tokyo(1870)(필자 소장).



그림 21. 오치아이 요시키(1833-1904) : 전성칠복유(全盛七福遊, 1868)(필자 소장).

‘배우일시계(俳優日時計, 1816)’는 6명의 가부키 인기 배우로 하루의 辰巳午未申酉(신사오미신유)의 시간을 그린 대판금 그림 6장 모음이다. 그중에 한 장인 신각(辰刻)은 오전 8시경을 말하는데 이치카와 굿주로가 아침에 일어나 방양지로 치아를 닦고 있다(그림 22).³⁾ 소금이 들어있는 옷칠한 박스, 이치카와가의 문양「황소의 잉어」가 금 도장으로 그려져 있다. 어떻게 보면 칫솔이나 치약 상업 포스터로 보인다. 가부키 배우가 칫솔 홍보대사가 되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에도시대의 평균 은퇴 연령은 45세 정도였다고 한다. 이유는 이 시대 안과와 치과가 없었기에 눈과 치아가 퇴화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론해 보면, 근대 이전에는 안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발치한 후 의치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식사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것이 삶의 최대 억제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장수한 사람은 건강한 눈과 치아가 좋았을 것이다.

특히 에도시대에 양지 및 칫솔 가게가 번성하여 칫솔질 습관만은 급속하게 퍼진 것 같다. 게다가 칫솔질뿐만 아니라 혀를 닦는 습관도 시작된다. 또 히트 상품에는 모래가 섞인 것도 있어, 치아를 상실할수록 치아를 더 닦았고, 더러운 치아를 갖는 사람은 시골 사람이라고 놀렸고, 그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 냄새」 등이라고 말했다. 하얀 치아를 갖는 것을 장려하였다.

4. 치약(Tooth powder)

1625년 Chojiya Kizaemon이라는 일본 상인이 조선 사람으로부터 치마(齒磨, tooth powder)를 제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³⁾ 1625년이면 인조반정(1623)이 일어난 2년 후의 일이다. 조선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일부 조선 사람들이 치약 가루를 사용하였고, 그중에 한 사람이 일본에 제조 방법을 전수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둔 일본 치과의사의 정직함이다.

일본 에도시대 시장에서는 나무 칫솔과 치약 가루 판매가 호황이었다고 한다(그림 23). 불교 의식을 행할 때 몸을 정화하기 위해 칫솔질이 필수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칫솔과 치약 가루가 불티나게 판매되었다. 칫솔과 치약 가루는 판매하는 곳



그림 22. 배우일시계(俳優日時計, 1816)중 오전 8시경을 표현한 우키요에.



그림 23. 에도시대에 사용된 tooth powder.

에서는 다양한 쇼가 펼쳐졌다. 그릇 돌리기, 무술 시범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서커스 비슷한 것이 행해졌다(그림 24). 지금도 400년 전의 제조 방법이 그대로 전해내려와 치약 가루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

5. 목상의치(木床義齒, Wooden denture)

8세기 초 무렵 중국과 한국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유입된 이후 목조불상 조각기술이 발달했다. 이 기술은 에도시대(1603-1867)가 전성기였다. 나무로 보철물을 조각하는 단계는 분명해 보이지만 16세기에만 이루어졌고, 일본에서만 이루어졌다(그림 25). 보철물은 야자나무, 체리나무, 살구나무로 조각되었는데, 나무에서 기분 좋은 향과 달콤한 맛이 났다(그림 26).⁸⁾

일본에서 1500-1800년대에 제작된 목상의치(木床義齒)가 200개 이상 발굴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의치는 와카야마에 있는 절 근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무덤의 주인은 이름이 Hotoke Hime인 여성으로 76세인 1538년에 사망하였기에 목상의치는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틀니의 전치부는 검게 염색되어 있었다.

에도시대 목상의치는 부유층 즉 상인, 유명 작가 그리고 봉건 영주 등만이 장착할 수 있었다. 틀니는 회양목(box wood)으로 제작되었고, 전치부는 납석(pagodite), 상아, 동물 뼈 또는 사람의 발치된 치아가 틀니 베이스에 고정되었다. 구치부는 틀니 베이스에 은 또는 구리 못을 고정하여 단단한 음식도 저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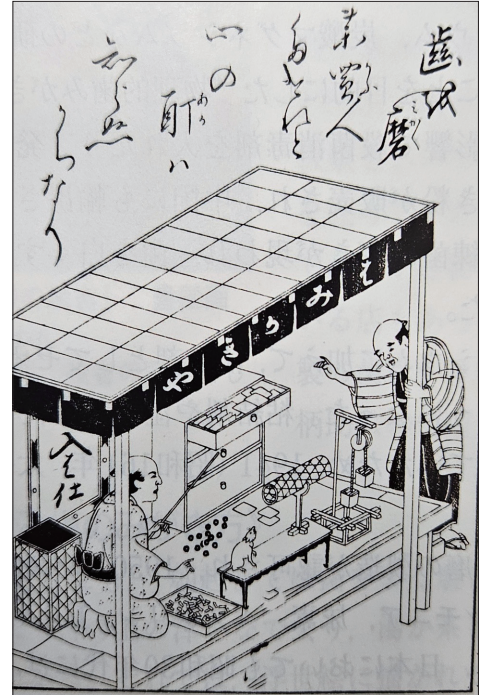


그림 24. 1730년 포장마차에서 쥐를 이용한 기예를 보여주며 치약 가루를 팔고 있는 모습.



그림 25. 목상의치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들.



그림 26. 단계별 목상의치 제작 과정.

일본에서 목상의치의 창시자에 관한 의견이 논쟁 중이다. 나무 틀니 기원에서 가장 오래된 인물은 무신 정권 시절의 Tanba Suemoto(1249-1323)이다. 이러한 근거는 Suemoto의 초상화에서 그가 나무 틀니를 들고 있다는 점이였다(그림 27).¹⁰⁾ Kamakura(鎌倉) 시대에 ‘틀니’라는 용어가 없었기에 목상의치를 Suemoto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신뢰성이 결여된다. 게다가 현재의 초상화는 도쿄 치과대학 창립자인 Takayama Kisai(1850-1931)가 불에 소실된 초상화를 복원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에도시대전에 목불상을 제작하는 장인에 의해 목상의치가 처음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림 27. 목상의치 창시자로 불리는 Tanba Suemoto(1249-1323) 초상화.

요코하마 영자신문 Far East 1872년 5월 31일 기사에 치과의사로 소개된 사진이 있다(그림 28).¹¹⁾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치과의사가 아니고 틀니를 제작하는 입치사다. 그가 들고 있는 나무 가방에 써진 어구중일도(御口中一刀)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보인다. 어(御)는 임금에게 관계(關係)된 말의 머리에 붙이어서 공경(恭敬)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구중(口中)은 구중에서 입을 이르던 말로 임금이나 그 직계 왕족에 사용되었다. 일도(一刀)는 나무 틀니를 조각하는데 사용된 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칼로 목상의치를 제작하여 사람의 입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일본 나라시대 요로(養老) 2년(718년)에 요로 율령에 정해진 4개 과의 의사박사 중 하나가 이목구치과(耳目口齒科)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인 의심방(醫心方, 982년 완성)에 치과 질환이 기록되어 있다. 구강 질환만을 치료하는 구중의(口中醫), 입치(入齒)만을 제작하는 입치사(入齒師)가 있었다(그림 29).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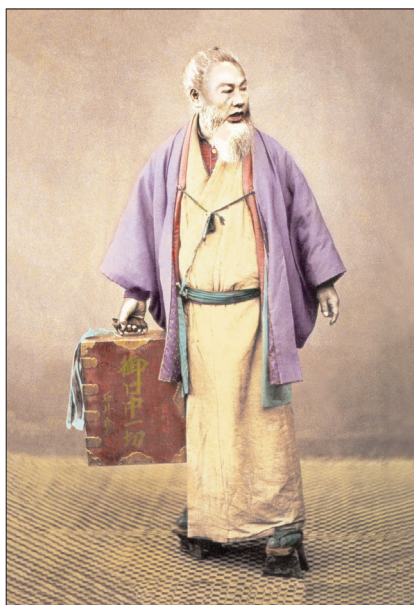


그림 28. 1872년 일본 영자신문에 치과의사로 소개된 입치사.



그림 29. 에도시대 후기 구중의(口中醫)가 진료하는 모습.

1866년 입치사 나무 간판이 진료실과 지붕에 있다(그림 30). 간판의 글씨는 내림으로 입참오장원(入參五臟圓)이라 쓰여있고 좌우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진료실 간판은 원형이며 쇠장식으로 만들어졌다(그림 31). 2대째 입치사인 스다 마츠베에가 무치악 노인에게 목상의치를 제작해주고 있다. 기구 받침대에 놓여 있는 창, 칼등이 나무를 깎는 데 사용되었다(그림 32).

Kuniyoshi Utagawa(1797-1861)와 Yoshiiku Ochiai(1833-1904)는 서로 사제지간이고, 동일한 제목의 우키요에 ‘Medical treatment for an incurable disease’를 남겼다(그림 33, 34).⁷⁾ 사실 제자인 요시이쿠가 스승인 쿠니요시의 그림을 모방하였다. 3장의 그림이 연속되어 붙여진 나무 목판화인데 그중에 한 장이 치과 진료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쿠니요시 우타가와(Kuniyoshi Utagawa)의 삼부화는 Kitai na meii manbyoryoji(어리석은 의사의 삼부작)라는 일본어 제목을 갖고 있으며 각각 약 360X250mm 크기의 세 개의 연결된 목판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는 다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한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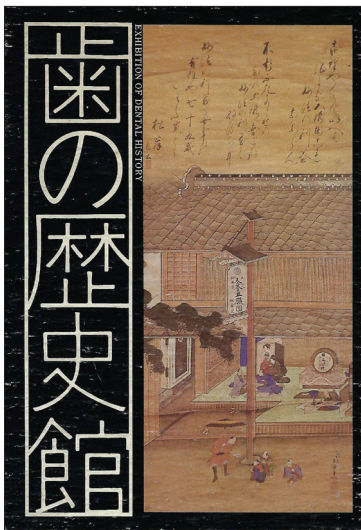


그림 30. 치과 역사관(1981) 표지에 그려진 1866년 입치사 간판 그림.



그림 31. 그림 30을 확대한 그림.



그림 32. 목상의치의 문화사(1995) 표지.



그림 33. Kuniyoshi Utagawa(1797-1861) : Medical treatment for an incurable disease(1853).



그림 34. Yoshiiku Ochiai(1833-1904) : Medical treatment for an incurable disease.

그림 삼부작의 중앙에 진료실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의사가 왼손을 긴 테이블에 기대고 전체적인 상황을 감독하고 있다. 그녀는 일본에서 대체 의학으로 진료 중인 4명의 검은 옷을 입은 조수를 지도하는 사람이다. 그림에 나온 다른 참석자들은 환자이거나 질병을 의인화한 것이다. 가운데 그림에서 발치를 받는 여성을 ‘이빨 늑대’라고 부른다. 이 장면은 아픈 사람과 기형을 가진 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전능함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실, 삼부화는 이상한 병에 걸린 이상한 환자들과 이상한 여의사의 감독하에 이상한 돌팔이 사기꾼들에게 치료를 받는 모습을 풍자하는 그림이다. ‘이빨 늑대’로 불리우는 여성은 뒤로 무릎을 꿇고 있고, 치과 의사도 역시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로 있다(그림 35). 그는 집게를 가지고 상악 치아를 발치하고 있다. 나무로 제작된 상악 틀니가 그려진 종이가 의사 앞에 놓여 있다.

왼쪽 목판화에서 이발사는 노인의 머리를 면도하고 있고, 또 다른 인물은 턱을 만지면서 면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인물은 틀니를 만지고 있다(그림 36). 그림 상단에서 넥타이를 묶고 있는 돌팔이 의사는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난쟁이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에 서 있는 여성은 망치와 막대를 사용하여 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도수 치료를 받고 있다.

우측 목판화에는 마스크를 쓴 여성이 얼굴에 훈증 치료를 받고 있고, 기모노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은 진단을 위해 왼발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7). 증기욕 앞에 마스크를 쓴 여성은 얼굴에 천연두로 인한 상처가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 철제 마스크를 쓰고 훈증 치료를 받으면 얼굴이 붓고 천연두의 상처가 메워진다고 한다. 기다란 코 마스크와 눈 마스크를 쓴 남자 두 명도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낙담한 환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목이 짧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바닥에 엎져 있고, 큰 돌을 들고 있는 남자가 지켜보고 있다. 목이 짧은 여인은 철분을 함유한 기름으로 신체 부위를 문지른 후에 그녀의 목은 자석의 도움으로 더 길게 당겨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림 중앙에 있는 발치사의 허리 부분에 쿠니요시 우타가와(1797-1861)의 이름과 별명이 적혀있다. 쿠니요시는 8천에서 1만 점의 목판화를 만들었고, 약 200권의 우키요에 책을 그렸다. 그는 우키요에 판화의 두 거장인 호쿠사이(1760-1849), 히로시게(1797-1858)와 동시대의 화가였다.



그림 35. 그림 33의 중앙 확대 그림.



그림 36. 그림 33의 왼쪽 확대 그림.



그림 37. 그림 33의 오른쪽 확대 그림.

쿠니요시는 일본에서 쇼군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렸다. 난치병이 있는 사람과 그것을 치료하는 가짜 의사를 통해 인간이 겪는 다양한 고통의 모습을 통렬하게 그림에 담았다. 쿠니요시는 또한 이 그림과 관련하여 검열관의 심문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림에 쇼군의 딸을 묘사한 것으로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삼부화 우측 그림에서 빨간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다.

실제로 이 그림에는 왕의 권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담겨 있었고 막부를 조롱하는 것이 공익에 해가 된다는 혐의를 받아 발매금지와 절판처분이 되었다. 쿠니요시가 기소되지 않았지만, 출판사는 두려움 때문인지 우키요에 원본 목판과 남아있는 원본 그림을 모두 파기했다. 그림의 희귀성 때문에 쿠니요시의 삼부화 원본은 일본 치과계와 의료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림 중 하나다(그림 38).

쿠니요시의 제자였던 오치아이 히로시(Yoshiku Ochiai, 1833-1904)는 스승의 그림을 모방하여 메이지 시대에 동일한 제목으로 우키요에를 그렸다(그림 34).⁷⁾ 쿠니요시의 원본과 비슷한 구도이지만 발치사는 원본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고, 발치를 받는 여성은 흑치를 하지 않는 젊은 여성으로 대체되었다(그림 39). 3개의 나무 틀니가 보이며 발치는 그 당시 집계와 나사를 이용하여 치통을 제거하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십 몇 년 전에 자주 갔던 사우나 거울 하단에 치과 광고가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치과명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는데 목욕을 깨끗이 한 치과의사인 필자로 하여금 조만간에 내 입안도 스킨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게 하였으니 광고로서는 대성공인 셈이다.

도요하라 쿠니요시의 우키요에 ‘칫솔질을 하고 있는 여인’의 원본을 구입하면서 다른 우키요에 화가처럼 도요하라도 또 다른 치과와 관련된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을 두고 또 다른 그림 찾기에 나섰다. 도요하라의 1868년 작품 ‘공중 목욕탕’은 삼단 그림 우키요에중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림이다(그림 40).³⁾ 그림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고 목욕하는 여인들 장면도 희귀하다. 목욕탕 벽면에 붙은 종이들이 그 당시 광고임을 짐작



그림 38.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쿠니요시 우키요에 원본.



그림 34. 그림 34의 오른쪽 확대 그림.



그림 40. Toyohara Kunichika(1835-1900) : A scene of a public bath, triptych(1868).

하게 한다. 그중에 입치(入齒)라는 글자가 필자의 눈에 딱 들어왔다 (그림 41). 1868년 일본에 아직 서양의 치의학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치사(入齒師)가 치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료다(그림 42, 43). 우키요에 원본을 구입한 것도 만족감을 주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만족감을 넘어 성취감까지 터치하는 기분이다.



그림 41. 그림 40의 가운데 그림.



그림 42. 2019년 가나가와현 치과의사협회 치과 박물관에 전시중인 메이지 시대 입치사 간판.



그림 43. 2020년 니카타에 있는 일본 치과대학 박물관에 전시중인 입치사 간판.

서양 화가 세잔, 르느와르도 목욕하는 여인들 그림이 있다. 우리나라 신윤복도 ‘단오풍정’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그림 44). 세 그림 모두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면 명작이다. 도요하라 쿠니요시의 대중목욕탕 그림은 치의학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와타나베 카잔(Watanabe Kazan, 1793-1841)은 일본 에도시대의 무사이자 화가다. 와타나베가 1818년 ‘一掃百態(일소백태)’라는 그림 화첩을 출판하였다(그림 45).⁴⁾ 화첩은 32페이지 분량이다. 일소백태는 세상의 백가지 모습을 한 번에 그렸다는 뜻이다. 글씨를 일필휘지(一筆揮之)한 것처럼 그림을 일소(一掃)한다는 것은 고수만이 가능할 것이다. 와타나베 카잔보다 나이가 50살이 더 많은 김홍도(1745-1806)의 풍속화첩이 생각난다. 와타나베 일소백태와 김홍도의 풍속화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하다. 18세기 중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조선과 일본의 풍속화를 그렸다. 와타나베와 김홍도 두 사람 모두 독자적인 화풍을 가졌다. 다만 다른 점은 와타나베는 19세기 치과 진료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을 남겼고(그림 46), 김홍도는 애초에 치과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인지, 그렸는데 치과 그림이 남겨지지 않은지 알 수 없다.



그림 46. 와타나베 카잔의 풍속도.



그림 44. 신윤복 : 단오풍정(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45. 와타나베 카잔의 一掃百態(1818).

필자는 최진우 화가에게 의뢰하여 김홍도 화풍으로 치아를 치료하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부탁하였다(그림 47). 이탈리아 그림에서 발치사가 말을 타면서 발치하는 모습을 봤는데(그림 48),¹³⁾ 일본 그림에서는 발치사가 키다리 장대 나무 신발을 신고 발치를 하고 있다. 화가는 본 것을 그린다고 한다. 와타나베도 19세기 초 실제로 키다리 장대 신발을 신고 발치하는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7. 화가 최진우가 김홍도 화풍으로 그린 치과 진료 그림.



그림 48. Jan Lingelbach(1622-1674) : Italian marketplace with a quack dentist(1651).

토슈사이 샤라쿠(Toshusai Sharaku)는 1794년 5월경 일본 동경에 나타나 10개월 동안 140여점의 그림만 남기고 사라진 우키요에 화가다. 샤라쿠가 단원 김홍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책도 출판하였다. 몇몇 방송국에서 ‘김홍도와 샤라쿠’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방송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김홍도가 일본에서 화가 ‘샤라쿠’로 살았다는 가정하에 영화로도 제작될뻔했다. 김홍도역은 황정민이 맡아서 넷플릭스에서 ott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미 웹툰은 적화소(2016)와 샤라쿠 스캔들(2017)이 제작되었다(그림 49). 김홍도가 도슈사이 샤라쿠라는 전제로 제작된 작품인데 재미있다.



그림 49. 웹툰 적화소(2016).



그림 50. 치통을 표현한 우키요에(1883).

일본 헤이안 시대(794-1185)에는 병(病) 또는 충치가 생기면 사람의 몸에 악령이 붙었다고 믿었고, 승려, 음양사(陰陽師), 신앙 요법사는 환자에게 주문을 걸어 치료를 시도하였다.³⁾ 반면에 상류층은 구중의(口中醫)에게 치통 치료를 받았다. 에도시대(1603-1868) 서민들은 치통이 있으면 신불에게 기도하는 주술을 부렸다(그림 50). 따라서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오래된 마을에는 치신(齒神)과 치통지장(齒痛地藏)이 지금도 남아있다. 에도시대에 탄생한 입치사(入齒師)는 치통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민간요법으로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방법이 있었고, 치통을 차단하는 약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었다.

에도막부 말기에 네델란드에서 수입되었던 크레오소트(creosote)는 치통 진통제 · 케레오소트 진통 효과가 있었다. 난서에는 치통을 막기 위해 "크케레오소트"라고 되어있다. 메이지 시대나 대정기에 치통이 있으면 응급 처치로 오치니 쇼로마루(주성분은 크레오소트 가루)로 충치 와동을 막았다. 치조농루를 앓고 있는 남자가 크고 입을 벌리고, 손가락으로 이를 집어 여자에게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그림 51).³⁾ 남자 앞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만 부실한 치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 51. 12세기 중반 치조농루(齒槽膿漏)를 앓고 있는 남성의 모습.

신사, 불각 또는 소사, 소당에 기원 또는 보사를

위해 말 기타 그림을 그려 봉납하는 그림을 쇼오에마(小絵馬)라고 한다(그림 52). 전문화가가 붓을 휘두른 현판 형식의 다이에마(大絵馬)와 이름 없는 화가나 봉납자 자신이 그린 쇼오에마(小絵馬)가 있다. 말 그림 즉 에마(絵馬)의 기원은 신과 말의 관계가 근원이다.

지금도 시험 합격이나 취업을 소원으로 신사에 가서, 쇼오에마(小絵馬)에 소원을 쓰는 풍습이 남아있다.⁴⁾ 도쿄 신바시(Shinbashi)역 서쪽 출구, 히비야신사(日比谷神社)의 '사바이나리 묘진'에는, 치통이 있는 경우 '두 마리 고등어 쇼오에마'를 봉납하고 있다(그림 53). 에도시대에는 역 근처까지가 바다였기 때문에, 고등어와 정어리 등이 잡혔다. 서민들은 충치로 인한 치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름 고등어 코에마를 봉납하고, 1년간 고등어를 끓을 때니 치통을 치료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도쿄 미나미센주(南千住)의 히에신사(日枝神社)의 '치신·산왕(The mountain king)'에는 '땃 물림의 쇼오에마'가 봉납되어 있다(그림 54). 땃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땃을 입에 물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쇼에마는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치통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그림 52. 일본 신사 앞 상점에 다양한 소원을 비는 쇼오에마.



그림 53. 두 마리 고등어 쇼오에마.



그림 54. 땃 물림 쇼오에마.

도쿠시마현(徳島県) 고마쓰시마시(小松島) 일봉산(日峰山) 정상에 있는 히미네신사(日峰神社)의 일봉님께 치통이 해소되길 부탁드립니다 게 그림의 쇼오에마를 봉납하였다고 한다(그림 55). 딱딱한 등껍질도 씹을 수 있는 치아를 갖도록 말이다.

수십 만장의 우키요에 중에서 치과와 관련된 그림 몇 점을 엄선하여 본 고에 소개하였다. 필자의 가장 내 맘에 드는 그림은 1981년 작자 미상의 우키요에다(그림 56). 우키요에 스타일로 치과가 있는 일본 전통 가옥을 그렸다. 한국화 작가의 작품 중에 한옥에 있는 치과 풍경은 아니더라도 치과 간판이 보이는 한국화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림 55. 게 그림 쇼오에마.



그림 56. 작자 미상 : 치과 간판이 보이는 우키요에(1981).

참고문헌

1. Sen Nakahara : Manners and customs of dentistry in Ukiyoe, Ishiyaku publishers Inc, 1980
2. Rhoda Blumber : Commodore Perry in the land of the Shogun, Lee & Shepard Books, 2003
3. Toshihide Ohno : An illustrated history of tooth in Japan and the West 2nd edition, 2011
4. Toshihide Ohno : 치적(齒的) 박물관(博物館),わかば出版, 2015
5. Sen Nakahara : Tufted toothpicks and teeth blackening customs in Ukiyoe, Bulleti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34, No 2, 1986
6. Bernald S. Moskow : Art and in the dentist, The shorin Tokyo, 1982
7. G.J. Schade : Tandheelkunde in de Prentkunst, Uitgeverij, 2014
8. 新藤恵久 : 木床義齒の文化史, デンタル フォーラム(Dental forum), 1995
9. 기창덕 : 木床總義齒,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4권 제1호, 1983
10. Norinaga Moriyama : The history of the characteristic Japanese wooden denture, Bulleti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35, No 1, 1987
11. Toshihide Ohno : The guide book on dental museum, 가나가와현 치과의사회, 2015
12. 山田平太 : 齒の歴史館, 일본의료문화사, 1981
13. Pierre Baron : L'art dentaire a traverse la peinture, ACR Edition, 1986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카자흐스탄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ibalyk) 고고학 발굴

| 이 병 연

LEE, Andy Byung Yeon

I. 들어가는 말

II. 몸말

1. 동방기독교(The Church of the East, The Nestorian Church)의 전파
2. 동방기독교, 네스토리안이란? (The Church of the East, The Nestorian Church)
3. 카자흐스탄 중세 우샤랄(Usharal-Ilibalyk) 고고학 프로젝트
 - 1) 중세 도시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ibalyk)
 - 2) 묘비석(Kayrak)의 분석
 - 3) 사람유골분석
 - 4) 중앙아시아에서의 네 잎 꽃 모양

III. 나가는 말

카자흐스탄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ibalyk) 고고학 발굴

덴탈서비스 인터내셔널 인문사회치의학연구소

이 병 연

“어떤 학식의 의문을 지닌 것만큼 흐뭇한 일은 없다. 내가 그 무엇을 모른다, 그 뭇을 알고 싶다 - 하는 거, 그래서 늘 흥미의 대상인 하나의 ? 을 지니고 그곳을 알고자 하는 일이야말로 즐거운 삶이다. 자기직업 - 그것과 관련된 일들 중에서 알고 싶은 것들, 그것을 하나씩 알게 되는 기쁨, 그것은 결코 흔한 기쁨이 아니다.” - 이한수, 『동서치학견문기』

I. 들어가는 말

1980년대 대학시절 당시 이한수 교수님으로부터 치과의사학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 <주말의 치과의>, <동서치의학견문기> 등의 책을 구입하여 재미있게 읽었다. 필자는 1998년 파송을 받고 여러 사역지를 옮겨갈 때마다 이 책들을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읽었다. 이중에서 ‘서역치과의약전래사’ 등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2008년부터 서역, 즉 실크로드 지역으로 옮겨 치과의료봉사사역을 하게 되면서 네스토리안 동방기독교연구를 하게 되었다. 신학, 인문학 및 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동방교회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페르시아에 동방교회가 운영하는 곤데샤푸르 대학에 일반의, 외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약학 및 정신과 분야의 전문의들이 있었다. 이들은 현기증, 안질환 치료를 위해 두개골 수술을 하였다.

필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크리스토퍼 바우머, 스티븐 길버트, 찰스 스튜어트, 마크 디킨스 교수 등 국제적인 고고학 전문가들 및 중앙아시아의 드미트리 보야킨, 발레리 콜젠코 교수 등 현지 고고학자들²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방 기독교 고고학 발굴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카자흐스탄의 중세도시 우샤랄-일리발릭 네스토리안 기독교 유적유물의 발굴에 대해 소개하기를 원한다.

우리 고고학 팀은 현지 정부와 고고학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등에서 온 고고학자, 건축학자, 언어학자, 도자기 전문가, 역사학자, 선교학자, 뼈전문가(Osteologist)가 있고 의료인은 필자와 간호사 한 명 그리고 여러 직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 크리스토퍼 바우머(Dr. Christoph Baumer, the Swiss Society for the Exploration of Eurasia, <http://www.exploration-eurasia.com>), 스티븐 길버트(Dr. Steven T. Gilbert, Tandy Institute for Archaeology, USA), 찰스 스튜어트 (Prof. Charles A. Stewart, University of St. Thomas, Houston, USA), 마크 디킨스(Prof. Mark Dickens,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드미트리 보야킨(Dr. Dmitry Voyakin, Archeological Expertise, Kazakhstan,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IICAS) by UNESCO Silk Road Programmes, <https://www.unesco-iicas.org>), 발레리 콜젠코(Prof. Valery Kolchenko, Institute of History, Archeology and Ethnology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Kyrgyz Republic)

안디옥(Antioch)³에서부터 멀리 동방의 몽골 심지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동방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불교, 텡그리 사상, 샤머니즘, 이슬람, 유교, 도교 등 여러 뿌리깊은 종교와 문화들로 가득한 곳이다. 중세 몽골 징기스칸의 공격, 이슬람 티무르 제국(Timurid Empire)⁴의 팽박과 여기에 AD1330년대 이 지역을 휩쓴 제2차 흑사병(Black Death)의 창궐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갔던 동방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⁵

II. 몸말

우리는 현지 정부와 함께 1년에 여름 한 달 동안 알마티에서 약 5시간정도 떨어진 ‘우샤랄(Usharal)’ 마을에서 발굴작업을 진행한다. 이곳은 날씨가 매우 덥고 건조한 스텝지역의 날씨여서 새벽 일찍 4시부터 일과가 시작된다. 간단하게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 5시부터 발굴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오후 2시에 마친다. 숙소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발굴한 유물들을 씻고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는 작업을 한다(그림 1). 발굴을 모두 마친 유물들을 모두 알마티 연구센터로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우리는 연구센터에서 뼈에 붙어 있는 흙을 떨어내며 각각의 뼈들을 분류하고 계측 및 비계측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고고학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2. 유골 및 묘비석(Kayrak) 발굴, 우샤랄-일리발릭 2018

3 ‘안디옥(Antioch)’ 안티오크라고도 하며 오늘날 터키 남부, 시리아-레바논 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초기 기독교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5개의 총대주교좌가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4 ‘티무르 제국(Timurid Empire)’ 아무르 티무르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건국한 이슬람 왕조이다. 전성기의 판도로 북동쪽은 동튀르키스탄, 남동쪽은 인더스강, 북서쪽은 볼가강, 남서쪽으로는 역사적 시리아·아나톨리아 방면까지 이르러, 과거 몽골제국의 서남부 지역도 지배하였다. 창시자인 아무르 티무르 재위 중에 티무르 제국이라 불렸다. 왕조의 시조 아무르 티무르는 발라스부의 출신으로 언어적으로 투르크화하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화했다.

5 Maria A. Spyrou, et al., The source of the Black Death in fourteenth-century central Eurasia., 2022, www.nature.com

1. 동방기독교(The Church of the East, The Nestorian Church)의 전파



그림 2. 중앙아시아로의 동방기독교전파 100AD -1350AD (© Dr. Steven Glibert)
“시리아로부터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소그디아, 백훈족, 투르크족, 중국 및 투르크-몽골족까지”

초대교회 이래 기독교는 사도 바울일행에 의해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위치한 로마제국을 통해, 그리고 사도 도마 일행에 의해 동쪽에 위치한 파르티아 제국(Parthian Empire)⁶을 통해 활발하게 전파되었다. 로마제국 하에서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AD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는 국가권력의 뒷바침 아래 서방세계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대부분 서방의 이방종교들은 멸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반대로 기독교의 탄생지역인 아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및 유교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장애물들이 있었다.⁷ 이러한 커다란 장애와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안디옥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공용어로 쓰였던 시리아어를 통해 면면히 전파되었다. 즉 시리아어를 쓰는 기독교인들이 상업의 통로였던 실크로드를 통해 신흥종교인 기독교를 동방으로 전파했다. 당시 서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였고, 동방교회는 시리아어를 사용하였다.⁸

동방교회의 전파 시기는 크게 네스토리안 교회가 전파되기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네스토리안 교회가 전파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 우르파(Urfa)인 당시의 로마와 페르시아의 접경지역 에데사(Edessa)와 현재 이라크 북쪽 도시인 엘빌(Elbil)이라는 당시의 아르벨라(Arbella)라는 곳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에데사는 ‘시리아 기독교의 어머니 도시’라 불리울 만큼 동방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다(그림 2).⁹

6 ‘파르티아 제국(Parthian Empire)’ 아르사케스 제국(Arsacid Empire)이라고도 하며 고대 이란에 있었던 이란족의 정치문화적 세력이었다. 전성기 때 파르티아 제국은 오늘날 중동부 터키 일대인 유프라테스 강 일대에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서부 파키스탄 지역까지를 영토로 보유하고 있었다. 파르티아 제국은 지중해 분지에 있는 로마 제국과 고대 중국의 한나라를 잇는 비단길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파르티아인들은 페르시아, 헬레니즘, 그리고 역내 문화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제국이었다.

7 김인수 역, 『아시아 기독교회사』, Samuel H. Moffett,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pp. 777-780

8 안경덕 역, 『실크로드 기독교 동방교회의 역사』, Christoph Baumer, 일조각, 2016, p60

9 안경덕 역, 『실크로드 기독교 동방교회의 역사』, Christoph Baumer, 일조각, 2016, p49

2. 동방기독교, 네스토리안이란? (The Church of the East, The Nestorian Church)

AD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제국이 하나의 종교로 결속되기를 위해 기독교 교리를 하나로 통일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에 관한 것이었다. 안디옥 학파는 공관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역사적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 이에 반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키릴로스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마리아를 ‘씨오토코스’(Theotokos)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안디옥학파의 대주교 네스토리우스¹⁰는 마리아를 존경하지만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는 ‘크리스토 토크스’(Chistotoko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AD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불법적으로 네스토리우스와 안디옥학파를 이단으로 결정하였다.¹¹

네스토리우스가 AD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자 그를 추종하는 지지자들이 박해를 피해 AD489년 로마를 떠나 페르시아로 넘어갔다. 안디옥 신학의 전통을 고수하는 앗시리아 동방교회 즉 에데사 교회와 아르벨라 교회가 AD497년 네스토리안 교회와 통합하여 ‘페르시아 교회’, ‘네스토리우스교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동방기독교가 발전해 갔다.¹²

필자는 ‘네스토리안 교회’라는 용어보다는 ‘동방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동방교회는 네스토리우스 훨씬 이전 이미 초대교회부터 동쪽으로 기독교를 전하여 세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방기독교’라는 용어는 ‘서방교회’에 반대되는 지리적 개념보다는 ‘예수께서 해 뜨는 곳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믿었던 당시 동방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유목민족인 키르기즈 및 카작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동쪽이라는 말은 ‘서거스’ 즉 해가 뜨는 쪽이고, 서쪽이라는 말은 ‘바터스’ 즉 해가 지는 쪽이라고 말한다. 즉, 동서남북의 개념에서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고 서서 앞쪽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뒷쪽이 서쪽이며, 오른쪽이 남쪽에 해당하며 왼쪽은 북쪽에 해당한다(그림 3).¹³



그림 3. 동방기독교 유적 “악베심(Ak-Beshim), 키르기즈스탄 (Photo by J. LEE)”

10 ‘네스토리우스(Nestorius)’ (AD382-451년) 안디옥 학파의 사제이자 수도사였으며, 이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AD428-431)가 된다. AD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몰려 AD435년 국외로 추방되어 페트라로 망명 수도원에서 은둔하였다. 이후 다시 이집트로 추방되어 많은 저술을 남기고 AD451년 사망하였다.

11 안경덕 역, 『실크로드 기독교 동방교회의 역사』, Christoph Baumer, 일조각, 2016, p88-107

12 김호동,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까치글방』, 2002, p106

13 “...과거 북방의 유목민들은 동서남북과 같은 방위를 나타낼 때 좌우전후라는 말을 흔히 사용했다. ...돌궐인들은 해가 뜨는 북방을 왼쪽으로 남방을 오른쪽으로 칭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방향 설정이 기본적으로 동향이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몽골인들의 경우는 달랐다. 그들에게 왼쪽은 동방을, 그리고 오른쪽은 서방을 뜻했다. 그것은 그들이 남쪽을 향해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김호동, 황하에서 천산까지, 사계절, 1999, p154

3. 카자흐스탄 중세 우샤랄(Usharal-Ilibalyk) 고고학 프로젝트

1) 중세 도시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ibalyk)

차가타이 칸국(Chagatai Khan)의 수도였던 알말릭(Almalyk)¹⁴ 다음으로 제일 컸던 이 도시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ibalyk)은 AD14세기 이후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져 그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다. 이 도시는 2014년 카자흐스탄의 동남쪽 중국과 접경지역인 자르켄트(Zharkent) 근처에 있는 우샤랄-일리발릭의 한 학교 교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네스토리안 십자가와 시리아 문자가 쓰여진 고대 투르크어 비문이 새겨진 약 1m 길이의 묘비석이 발견된 것이다. 이 잊혀진 옛 도시가 약800년만에 역사에 다시 그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다. 2016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적 사전 연구조사와 함께 지금까지 고고학 발굴작업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곳의 공동묘지에 약 500기 정도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곳의 이름은 ‘우샤랄(Usharal)’인데 AD12-14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의 이름은 ‘일리발릭(Ilibalyk)’이다. 이곳은 과거 상업 통로로서 키르기즈스탄의 수얍(Ak-Beshim), 나바켄트(Krasnaya Rechaka) 및 발라사군(Burana)과, 동쪽으로는 중국의 알말릭(Almalyk)과 굴자(Yining)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리강(Ili River)¹⁵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그림 4).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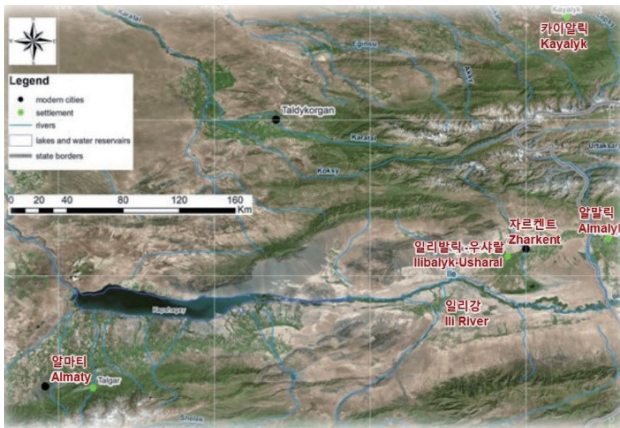


그림 4. 우샤랄-일리발릭 (Usharal-Ilibalyk), 자르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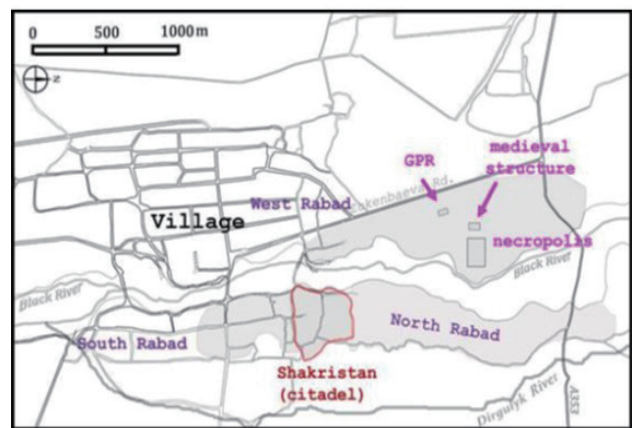


그림 5. 우샤랄-일리발릭 고고학 발굴지역(© C.A.Stewart)

2014년에 고대 투르크어로 시리아 문자가 새겨진 비문과 함께 십자가가 새겨진 1m 길이의 묘비석(Kayrak)을 페트로스 묘비석(Petros Kayrak)이라 명명하였다(그림 6). 이 묘비석은 ‘동방교회’ 즉 ‘네스토리안 교회’ 교인의 소유였으며,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이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최초의 유형적인 고고학적 증거이다.¹⁷

14 ‘알말릭(Almalyk)’ 차가타이 칸국(Chagatai Khanate or Chagatai Ulus)의 수도. Almalyk(위구르어: قىلىملى; 중국어: 阿力麻里), Almalik이라고도 한다. 현재 중국 신장성 후오청 현(HuoCheng County)의 일리 분지에 있는 중세 도시이다. 동차가타이 칸국 모굴리스탄 칸국의 초대 칸인 투글루크 티무르(Tughlugh Timur)의 영묘가 자리잡고 있다.

15 ‘일리 강(Ili River)’ 중국 북서부와 카자흐스탄 남동부를 흐르는 길이 약 1,439km의 강이다. 즉,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이리 카자흐 자치주에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주로 흐른다. 텐산산맥(Tianshan Mountains)에서 발원하여, 발하슈 호수(Balkhash Lake)로 흘러 들어 간다.

16 D. Voyakin, S.T. Gilbert, C.A. Stewart, The Christian Community of Medieval Ilibalyk: Initial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f a Medieval Site in Southeastern Kazakhstan, 2020, p356

17 D. Voyakin, S.T. Gilbert, C.A. Stewart, The Christian Community of Medieval Ilibalyk: Initial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f a Medieval Site in Southeastern Kazakhstan, 2020, p356

이후 2016년부터 국제 고고학 팀은 이 우샤랄(Usharal)의 역사적 유적을 면밀히 조사했다. 고고학전문가들은 샤크리스탄(Shakristan, 왕궁 및 행정 중심지)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진흙벽돌로 축조된 성벽의 윤곽을 뚜렷이 확인했다. 이 샤크리스탄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과 서쪽으로 대규모 라바드(Rabad, 주거, 상업 및 산업 공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방대한 양의 도자기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 곳은 AD12세기에서 14세기초까지 처음에는 카라한 투르크, 그 다음에는 몽골, 특히 차가타이칸국 아래서 크게 번성하였다(그림 5).¹⁸

2) 묘비석(Kayrak)¹⁹의 분석

2023년 현재까지 단단한 화성암으로 구성된 수십개의 묘비석(Kayrak)이 우샤랄-일리발릭 공동묘지에서 발견되었다. 이 묘비석들에는 네스토리안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도상학(Iconography)을 통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묘비석에 적혀 있는 비문연구를 통해 당시의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묘비문 연구는 당시 일리발릭(Ilivalyk)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²⁰

우리가 발굴한 몇 개의 묘비석에는 고대 투르크 언어가 시리아 문자로 새겨져 있다. 이를 볼 때 토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제공했을 정도로 동방교회의 영향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묘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통해 그들이 투르크 민족들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이며 자신들이 기독교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페트로 묘비석’에는 페트로스 즉 베드로라는 이름의 사제의 묘비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테긴(Tegin)이었다. 또한 할아버지 이름은 바샤바 쿠쉬(Barshabba Qush)이다. 이는 시리아어-투르크어 이름의 조합을 나타낸다. ‘안식일의 아들’을 의미하는 시리아어 바샤바(Barshabba)와 ‘힘’을 의미하는 투르크어 쿠쉬(Qush)이다(그림 6).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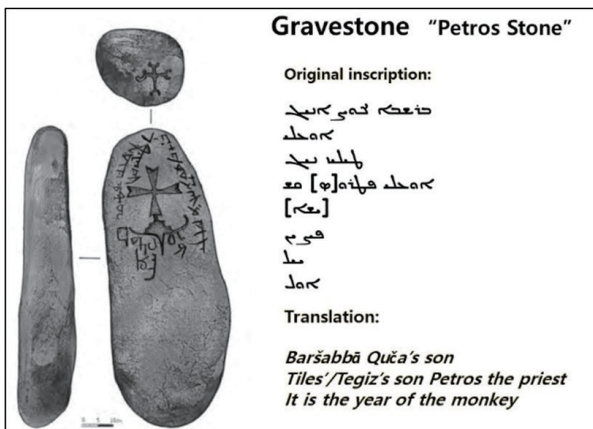


그림 6. 페트로스 묘비석(Petros Kayrak)



그림 7. 요시미드 묘비석(Yoshimid Kayrak)

18 Charles Anthony Stewart, The Four-Petal Almond Rosette in Central Asia, *Bulletin of IICAS*, DOI: 10.34920/1694-5794-2020-36 (2020, p69)

19 ‘카이락(Kayrak, кайрак)’은 중앙 아시아와 몽골에서 묘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돌 즉, 묘비석을 의미하는 명칭이다.

20 D. Voyakin, S.T. Gilbert, C.A. Stewart, The Christian Community of Medieval Ilibalyk: Initial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f a Medieval Site in Southeastern Kazakhstan. 2020. p363

21. “안식일의 아들”을 의미하는 시리아어 바사바(Barshabba)와 ‘힘’을 의미하는 튀르키어 쿠쉬(Qush). 이 흥미로운 이중 이름은 신학적 측면(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개념, 구약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안식일”)과 민족적 측면 (튀르키어로 “Qush”는 힘을 의미)을 의미한다. 페트로스 묘비석(Petros Kayrak)에서 발견되는 사제인 페트로스(Petros)의 이름은 분명히 예수의 첫 번째 사도이자 친한 친구인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다.”

D. Voyakin, S.T. Gilbert, C.A. Stewart, The Christian Community of Medieval Ilibalyk: Initial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f a Medieval Site in Southeastern Kazakhstan, 2020, p364

3) 사람유골분석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소아 및 성인의 유골을 모두 포함하여 모두 107기의 유골이 발굴되었다. 우리는 이 유골들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함께 실험실 및 법의학 분석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발굴한 유골들의 모든 몸은 머리가 서쪽을 향하고 발이 동쪽을 향한다(그림 8, 9). 즉, 죽은 사람들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 보도록 매장하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쪽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기반한 것이다(마태복음 24:27).²²



그림 8. 유골발굴지역, 우샤랄-일리발릭



그림 9. “Turkic-Mongolian Princess?”(Field 4 Area 15 Locus 290)

우리는 뼈대 연구실에서 유골들에 대한 계측 및 비계측 분석을 통해 성별 및 연령추정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각 개체의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키, 인구집단, 병리적 특성들을 추정한다. 과거 집단의 사망률과 출생률 및 그들의 생활상과 건강을 재구성하고 있다. 뼈에서 추출한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식생활 변화연구, 뼈와 치아를 통해 당시의 질병의 흔적과 생활 수준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 고고학 팀에서 필자는 두개골과 치아 연구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두개골과 치아의 각각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계측 및 비계측적 조사를 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아리조나주 박물관(Arizona State Museum)>의 기록지에 각각의 기록을 입력한다(그림 11, 12, 13, 14).



그림 10. DNA 분석을 위한 치아발거

우리는 현장에서 발굴해온 각각의 유골들에 대한 계측 및 비계측 분석을 통해 어떤 외상성 골절의 여부 및 성별 연령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개체의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키, 인구집단, 병리적 특성들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과

22 신약성경 마태복음 24: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개역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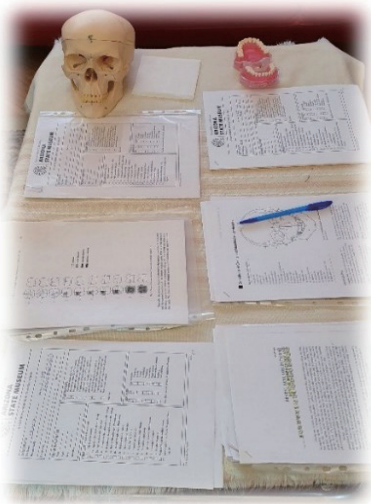


그림 11. Arizona State Museum Chart



그림 12. 하악골 계측 비계측 측정



그림 13. 두개골 비계측 측정



그림 14. 두개골 계측 측정

거 집단의 사망률과 출생률 및 그들의 생활상과 건강을 재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삽모양(Shovel)을 한 상악치아의 특징은 동아시아인들에게 많이 관찰된다. 치주염, 치근단염, 치근단 농양 등으로 인한 치조골 소실, 치아우식증, 치아마모증, 에나멜 형성부전 등 다양한 치과적 질환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또한 국제적인 전문 DNA 연구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당시의 어떤 대사성 질병, 선페스트 흑사병과 같은 전염성 질병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뼈에서 추출한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식생활 변화연구, 뼈와 치아를 통한 당시 질병의 흔적과 생활 수준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는 DNA분석을 위해 주로 치아(Tooth)와 측두골의 추체골(Petrous part)을 사용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이 곳은 카작인, 키르기즈인, 타직인, 위구르인, 몽골인, 동아시아인 등의 다민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³

23 AD13세기 페스트는 유럽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몽골을 거쳐 유럽으로 퍼졌다는 이론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D. Voyakin, S.T. Gilbert, C.A. Stewart, The Christian Community of Medieval Ilbalyk: Initial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f a Medieval Site in Southeastern Kazakhstan, 2020, p366

박순영 편저, 『뼈로 읽는 과거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pp.3-56, 139-180, 217-263

우은진, 정충원, 조혜란 지음, 『우리는 모두 2% 네안데르탈인이다』, 뿌리와 이파리, 2018, pp.99-116

김대욱, 우은진, 정상수, 하대룡 지음, 『고인골, 고대 압록 사람들』, 영남대학교 박물관, 2020, pp.43-70

4) 중앙아시아에서의 네 잎 꽃 모양

2019년 발굴 기간동안 한 무덤에서 발은 동쪽으로 머리가 서쪽으로 놓여 동쪽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한 여성의 유골이 발굴되었다. 이 여성은 두 개의 은팔찌, 두 개의 돌과 산호 구슬 팔찌, 두개의 귀걸이, 네 개의 손가락 반지를 포함한 장신구를 하고 있었다. 우리 팀의 찰스 스튜어트 박사는 이중 특별히 네 개의 꽃잎을 가진 로제트 디자인(Four-Petal Rosette Design)을 가진 두 개의 은팔찌와 두 개의 반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하였다. 그는 이러한 디자인이 상징속의 상징이었다고 제안하고 있다(그림 15).



그림 15. 출토된 부장품, 우샤랄-일리발릭, 자르켄트, 카자흐스탄(Field IV. Unit 7b. Loc. 89) Photo by D. Sorokin

꽃은 생명을 주는 십자가를 상징했고, 뒤집을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 때 믿음을 위장하고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즉 네 잎 꽃 모양과 십자가 이미지를 모두 표시하는 착시적이고 암호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그림 16). AD13세기말 차가타이 제국의 수도 알말릭(Almalyk)에서부터 차가타이 칸(Chagatai Khan)이 종교적인 불관용 정책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때 심한 학대와 억압을 경험했을 이곳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balyk) 기독교 공동체에 이러한 개념은 아주 중요했을 것이다.²⁴



그림 16. 볼니시(Bolnisi) 십자가

III. 나가는 말

초기 기독교는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위치한 로마제국을 통해 활발하게 전파되어 서방교회를 이루어 갔다. 같은 시기 사도 도마 일행은 동쪽에 위치한 파르티아 제국을 통해 복음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방교회를 세워 나아갔다. 이러한 동방교회는 다른 세계 종교들과는 다르게 한 차례도 국가권력의 뒷받침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가운데도 복음증거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였다. 오랫동안

안 중앙아시아 특히 키르기즈스탄의 동방기독교를 연구하고 있는 최갈렙 선생은 “서방은 빛의 복음을 전했다면, 동방은 소금의 복음을 전해왔다. 결국 동방, 서방에서 복음이 조화롭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한다.

필자에게 고고학 동방교회 연구를 하도록 격려해준 한 서양 사역자는 ‘나는 아시아에서 40년이 넘게 사역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서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동방교회 역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말을 하였다.

네스토리안 동방기독교연구를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서방 사역자들 외에 동방 즉 중동, 페르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고고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카자흐스탄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ibalyk) 고고학 발굴과 연구에 더 많은 의료관련 전문인들의 많은 참여와 연구가 요청되어진다.

참고문헌

1. 김규동, 『장안의 봄』, 쿼란출판사, 2019
2. 김규동, 『선의경교』, Loving Touch, 2022
3. 김대옥, 우은진, 정상수, 하대룡 지음, 『고인골, 고대 압록 사람들』, 영남대학교 박물관, 2020
4. 김상길, 세미레치예와 실크로드의 관계이해, 『세미레치예연구소 연구백서』, 주안대학교대학원출판부, 2021
5. 김상동 편역, 『아시아교회의 발자취』, William C. Emhardt & George M. Lamsa, 동서남북, 2008
6. 김인수 역, 『아시아 기독교회사』, Samuel H. Moffett,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7.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까치글방』, 2002
8. 김호동, 『황하에서 천산까지, 사계절』, 1999
9. 박순영 편저, 『빠로 읽는 과거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0. 안경덕, 『몽골과 그리스도교』, 일조각, 2021
11. 안경덕 역, 『실크로드 기독교 동방교회의 역사』, Christoph Baumer, 일조각, 2016
12. 우은진, 정충원, 조혜란 지음, 『우리는 모두 2% 네안데르탈인이다』, 뿌리와 이파리, 2018, pp.99-116
13. 이한수, 『동서치학견문기』, 석암사, 1977
14. 이한수, 『서역치의학전래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15. 최근봉, 동방기독교의 중앙아시아 유적 조명, 『세미레치예연구소 연구백서』, 주안대학교대학원출판부, 2021
16. 최하영, 실크로드 지역의 네스토리안 선교역사, 『세미레치예연구소 연구백서』, 주안대학교대학원출판부, 2021
17. Charles Anthony Stewart, The Four-Petal Almond Rosette in Central Asia, Bulletin of IICAS, DOI: 10.34920/1694-5794-2020-36 (2020)
18. D. Voyakin, S.T. Gilbert, C.A. Stewart, The Christian Community of Medieval Ilibalyk: Initial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f a Medieval Site in Southeastern Kazakhstan, 2020
19. Dmitry Pitirimov, 『History of Christianity in Central Asia』, Tashkent, Uzbekistan, 2007
20. Dr. Dmitry Voyakin, www.linkedin.com/in/dmitry-voyakin-8b242830/

21. Field Report on the Archeological Excavations at Usharal-Ilibalyk, Kazakhstan in 2022 (Revised & Expanded)
22. Maria A. Spyrou, et al., The source of the Black Death in fourteenth-century central Eurasia., 2022, www.nature.com
23. Monastery of the Church of the East in Uzbekistan. <https://serg-slavorum.livejournal.com/1858810.html>
24. S. G. Klyashtorny, V. M. Ploskikh, V. P. Mokrynin, Early Christianity and the Turkic world of Central Asia. September 2013: https://kghistory.akipress.org/unews/un_post:1814
25. Svyatoslav Antonov, Christians of the Great Steppe: How the Lost History of Kazakhstan is Discovered. 10/30/2018 Христиане Великой степи: Как открывают потерянную историю Казахстана <https://voxpathuli.kz/hristiane-velikoy-stepi-kak-otkryvayut-poteryannuyu-istoriyu-kazahstana-13825/>
26. http://www.exploration-eurasia.com/inhalt_english/projekt_2.htm

〈교신저자〉

- 이병연 (조선치대 90년 졸업, 치과보철학)

Dr. Andy Byung Yeon LEE, DDS, MSD

- 소속 : (카자흐스탄) <EOK Stomatology International Dental Clinic>

Abish Kekilbaiuly street 38B, 165 office almaty, Kazakhstan 050060

Tel: +7 747 620 2450

(대한민국) 덴탈서비스 인터내셔널 인문사회치의학연구소

(Institute of Humanities & Social Dentistry, Dental Service International, DSI)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88길 12, 305호 (삼성동 청진상가)

Tel: +82 2 511 1040

E-mail: dsi4hsd@gmail.com

피에르 포샤르의 삶

Life of Pierre Fauchard

김 태 홍
Kim, Taehong

I. 서론

II. 본론

1. 시대적 배경

2. 피에르 포샤르의 삶

3. <치과의사>

4. 포샤르가 남긴 유산

III. 결론

피에르 포샤르의 삶 Life of Pierre Fauchard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 태 홍

I. 서론

치과의료 발전이라는 주제 앞에서 피에르 포샤르(1678-1761)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는 탁월하고 재능있는 의사로 치의학 분야에 다양한 혁신을 도입한 인물이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기술과 지식을 비밀에 부쳤던 당시의 관례를 깨고 자신이 치의학 분야에 가진 지식과 기술을 상세히 서술한 최초의 치과 교과서를 집필한 것이다. 이 소논문에서는 그의 생애를 돌아보고, 치과의사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II. 본론

1. 시대적 배경

피에르 포샤르가 활동했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의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패권은 교황에서 신성로마제국으로 넘어간다. 이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며 시작된 종교 개혁은 이미 위기에 처해있던 교황권을 더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신성로마제국 역시 대내외로 분열과 충돌을 겪는다. 이후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일어났던 30년 전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의 패권 역시 기울게 된다. 이후 패권을 갖게 된 국가가 프랑스 왕국이다.

피에르 포샤르가 태어났을 때 프랑스 왕국의 왕은 ‘태양왕’ 루이 14세였다. 루이 14세는 72년이라는 유럽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절대왕정 체제를 이루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이루기 위해 귀족층보다 중산층 부르주아 출신을 중용하였고, 귀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의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여 사치에 탐닉하게 했다. 또한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였는데, 이는 상업 부르주아 출신인 콜베르(1619-1683)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콜베르는 또 중상주의의 일환으로 ‘왕립과학아카데미(1663)’, ‘왕립건축아카데미(1671)’ 등을 창설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프랑스 왕국의 수도 파리는 유럽의 문화, 예술, 철학,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최초로 국가가 육해군을 징병해 상비군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프랑스-네덜란드 전

쟁,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등의 대외적 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¹⁾

이러한 배경에서 18세기 초 계몽주의가 태동한다.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인간 이성을 중요시 하는 합리주의의 영향과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경험주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감각론 등 영국 철학의 영향,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의 물리학의 경험주의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이 탄생한다. 이때의 철학자들로 볼테르(Voltaire, 1694-1778),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백과전서파>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인간의 지성,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진보를 이루려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과 기술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계몽주의의 대두,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 루이 15세(1715-1774) 시기에 이르러 대외 분쟁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파탄, 루이 16세(1774-1792) 시기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프랑스 혁명(1789-1794)으로 이어지게 된다.

2. 피에르 포샤르의 삶

피에르 포샤르는 1678년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Brittany)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해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가족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역시 엘리트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그는 15세의 나이에 해군에 입대해 외과장교 포트르레(Alexandre Poteleret) 밑에서 외과 견습생으로 군 복무를 하였다. 여기서 그가 많은 외과 분과 중 치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우선 당시 바다에서 괴혈병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었다. 또한, 그의 상관이었던 포트르레는 구강 질환에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었다. 포샤르가 그의 저서에서 포트르레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고려하면 포샤르가 치과의사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었을 것이다.²⁾

3년 후, 1696년 그는 해군에서 제대하여 치과의사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는 프랑스 서부의 앙제(Anger)라는 도시에 치과를 개원한다. 앙제는 이 당시 대학교가 위치해 규모 있는 도시였다. 그는 앙제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과의사로 활동한다. 당시 치의학 수준은 굉장히 원시적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치아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확한 수를 어림잡을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기록으로, 1700년에서 1720년 사이 24명의 치과의사가 영국의 노리치 교구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기록이 존재한다.³⁾ 이런 상황에서 몇몇 환자들은 치아에 관심을 가진 외과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보다는 발치사에게 발치를 맡겼다.

앙제에서 포샤르는 본인을 외과의사가 아닌 ‘Chirurgien Dentiste(치과의사, Surgical dentist)’로 칭한다. 이 단어는 지금도 프랑스에서 치과의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외과학을 기반으로 치아와 구강영역을 다루는 새로운 영역의 의사임을 드러낸다. 그는 치과용 기구를 직접 제작하고, 수술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계 제작자, 보석 세공사, 이발사 등 다른 기술자들의 도구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 시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려웠던 환자나 특이한 환자의 경우 진료일지를 남겨두었는데, 이는 나중에 그가 저서를 저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된다.²⁾

1. 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서울: 까치글방, 2013

2. Viau G. The life of Pierre Fauchard. Dental Cosmos 1923; 65: 797-808.

3. Hargreaves A S. White as whales bone: dental services in early modern England. Leeds: Northern Universities Press: 1998; pp 51-55.

이 시대의 외과의들은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는 것이 필수적이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입도 늘리고, 기술 역시 연습할 수 있었다. 포샤르 역시 낭트, 렌, 투르 등 출장진료를 떠나기도 했다. 포샤르는 이 시기 프랑스 서부에서 많은 명성을 얻게 된다. 각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방문했으며 다른 의사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그는 1718년까지는 앙제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Maubreuil이라는 여인이 포샤르에게 치료를 받고자 낭트에서 앙제로 왔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다 1719년 초 Antonie de Jussieu라는 인물이 파리에서 충치 두 개로 큰 부종이 생긴 환자를 의뢰했다는 기록이 있어 1719년에는 파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Antonie de Jussieu라는 인물은 왕립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이자 왕실 정원의 식물학 교수로, 포샤르가 그의 중년에 얻게 된 명성을 짐작하게 한다.²⁾

당시 파리는 앞에서 서술한 대로 문화, 예술, 철학, 과학의 중심지였고 의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파리의 치과숙련가(dental expert)들 중 학식이 높은 의사는 소수고, 대부분 고객들의 외모치장이나 보철에 집중하고 있었다.⁴⁾ 1699년에 치과숙련가는 수석왕실 외과의, 보좌관, 네 명의 관리자, 의과대학 학장 앞에서 이론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파리 칙령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전문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주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이때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치과의사가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방법도 없었다. 또 이때 대부분의 치과숙련가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자신들만의 비법처럼 여겨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파리에서도 포샤르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감각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파리의 코메디 프랑세즈 거리에 치과를 개업한 그는 부유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저명한 의사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그러던 중 앞서 말한 상황, 견습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할 치의학 교과서가 없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의사들과 교류한 내용과, 자신이 기록한 진료일지를 바탕으로 1723년 <치과의사>라는 책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2권 800장에 가까운 분량과 42개의 도식을 포함하고 있는 이 책은 1728년 다른 의사들의 검토를 거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아이디어와 지식은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정받았고, 다른 저자에 의한 치의학 저서들의 출판도 이어진다. 비단 프랑스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웃 국가에도 빠르게 퍼져 1733년에는 독일의 내과의이자 왕실주치의였던 Aug. Buddäus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된다. 이후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고, 임상 결과를 반영해 1746년 개정판을 낸다. 이후 그가 사망한 후인 1786년 세 번째 개정판이 출판된다.

저서 활동 외에도 계속해서 환자를 진료했으며 1729년에는 Elisabeth Chmin과 결혼해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1747년 포부르 생제르맹(Faubourg Saint-Germain)으로 치과를 옮겨 진료를 계속하다 1761년 작고한다.⁵⁾

3. <치과의사>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서 <치과의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이 책은 백과사전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대 최신의 논문, 서적뿐만 아니라 고대 히포크라테스, 중세 이슬람 의학부터 민간요법, 이발사, 발치사 등의 기술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의 저서는 방대한 분량과 정확성 등으로 후대에 포샤르

4. (Lee), 이주연. 18세기 피에르포샤르의 '전문가주의'와 계몽주의.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14;52(11):656-669. <https://doi.org/10.22974/jkda.2014.52.11.001>

5. Lynch, C., O'Sullivan, V. & McGillicuddy, C. Pierre Fauchard: the 'Father of Modern Dentistry'. Br Dent J 2006; 201: 779-781

혼자만이 서술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친필 자료가 발견되어 이 같은 주장은 반박되었지만, 그의 저서의 체계성과 정확도가 뛰어남을 방증한다.

1권에서는 질병 목록과 임상증례를 다루고 있다. 103가지 구강질환을 분류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삼차신경통과 연관통, 근육통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다. 설당을 치아우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충치는 기구로 제거한 후 납, 주석, 금 등으로 충전했다. 흔들리는 치아는 금 와이어에 썰기를 박아 고정했다. 또 보철 치료로 광물, 코끼리 상아 등을 치아 모양으로 깎아 부목에 못을 박아 사용했다. 발치용 forcep을 창안하고 치주염의 병인과 치료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듯 현대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정확한 기술도 많지만, 시대적 한계도 있었다. 특히 내과 분야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을 받아들여 다양한 병인을 이로 설명했다. 이는 18세기 프랑스 내 과학이 지닌 한계이기도 했다. 또한 병사의 송곳니를 중위에게 이식하는 감염이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⁴⁾

2권에서는 치의학 전문 분야 별로 기구를 사용해 치료하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그는 직접 기구를 개발하기도 했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시계 제작자, 보석 세공사, 이발사 등의 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환자의 자세이다. 당시 대다수의 발치사들은 환자를 바닥에 앉혔으나, 포샤르는 환자를 안락의자에 앉혔다. 그가 발명하고 소개한 진료 기구와 진료 의자의 기본 개념은 현대까지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⁴⁾

4. 포샤르가 남긴 유산

피에르 포샤르는 헌신적이고 유능한 의사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교육자였다. 이러한 그의 삶은 치과의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가 현재까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정리하려 한다.

우선 그는 이익보다 윤리를 중시하는 치과의사였다. 당시 프랑스에는 과학과 윤리에 따라 양심적인 진료를 행하는 의사도 있었지만, 화려한 치장이나 눈속임, 미신이나 기적을 주장하는 돌팔이, 사기꾼도 많이 존재했다. 포샤르는 ‘교회도 이러한 행위를 미신이나 사악한 속임수라고 금지한다’며 이런 행위를 혐오했고, 그 자신은 증례와 그때까지의 내과적 지식에 기반에 치료를 시행했다. 이러한 윤리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는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할 태도이다.

또 교육자로서 그의 면모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무료로 공유한 것은 당시 의료계와 치과계의 관행을 깨는 것이었다. 그의 행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지식을 쌓고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유로운 공유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기회가 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치의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가 초판을 인쇄한 후 개정판을 내기 전에도 책의 내용에 대해 다른 치과의사들의 비판이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 이러한 배경에서 그가 작고한 이후에도 비슷한 저서가 다른 저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출판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그의 교육자로서의 행보는 이후 19세기 미국에서 치과대학이 설립되고 국가면허시험제도를 마련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치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르 포샤르의 활동이 있었던 시대적, 사상적 배경, 그의 생애와 업적, 그가 현대에 남긴 유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시까지의 치의학 이론을 집대성하고 자신의 비법을 공개한 그의 저서 <치과의사>는 치의학이 남아있는 한 고전으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고,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교육에 전념한 그의 삶은 모든 치과의사의 귀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인터넷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원격 진료 등 이러한 변화는 치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피에르 포샤르의 삶을 통해 본질을 잊고 길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신저자〉

- 김 태 홍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 Tel : 010-9426-7203, E-mail : taehong0209@gmail.com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1960. 10. 7 창립)

1984. 6. 30 제정

1986. 10. 14 인준

1987. 3. 11 개정, 1990. 5. 28 개정, 1995. 5. 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 13 개정, 2016. 6. 21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2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 제4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제 3 장 회 원

-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구 및 선 거

-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총무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제 5 장 총 회

-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세 칙

1. 입회비 : 5만원
2. 연회비 : 3만원
3. 평생회비 : 10년간의 연회비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

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3,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²는, 김 등²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째주 및 6월 첫째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치과기공학회 편집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권 훈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고문	김정균	편집이사	송영하	이사	임용준
고문	박승오	정보통신이사	이동운	이사	김명기
고문	신재의	정책이사	안진수	이사	이준규
고문	변영남	섭외이사	김성훈	이사	조영식
고문	김평일	연구이사	강경리	이사	박영준
고문	배광식	후생이사	조현재	이사	박덕영
고문	조영수	법제이사	진보형		
				교수협	박병건
명예회장	김희진	자문위원	김종열		
회장	이해준	자문위원	차혜영	대학이사	강신익
부회장	이주연	자문위원	허정규	대학이사	박호원
부회장	권훈	자문위원	홍예표	대학이사	이재목
부회장	김준혁	자문위원	백대일	대학이사	박찬진
총무이사	김현종	자문위원	김병욱	대학이사	이흥수
재무이사	신지연			대학이사	김성태
대외이사	유승훈	감사	박준봉	대학이사	박용덕
교육이사	유미현	감사	류인철	대학이사	김지환
학술이사	한승희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3년 제42권 제1호 통권 47호

Vol. 42, No. 1, 2023

발행인 : 이해준

편집이사 : 권훈

인쇄일 : 2023년 12월 23일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0831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7길 2

세브란스치과의원

전화) 02-854-0028, 팩스) 02-854-0027

<http://cafe.daum.net/denhistory>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의치학사

Publisher : Lee, Hae Joon

Editor-in-Chief : Kweon, Hoon

Printig date : December 23, 2023

Publication date : December 31, 2023

Published by :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2, Gurodong-ro 17-gil, Guro-gu, Seoul 08316

Severance Dental Clinic

Tel : +82-2-854-0028, Fax : +82-2-854-0027

<http://cafe.daum.net/denhistory>

Edition & Printing : Dental and Medical Publishing

Hydrophilic, Accurate

I-SiL™ VPS Impression Material

- Superior hydrophilicity
 - for excellent flow and the finest(precise) detail reproduction
- Excellent recovery after deformation
- Snap set effect
- High dimensional stability
- Thixotropic

Regular Set

- I-Sil Light Body
- I-Sil Regular Body
- I-Sil Heavy Body
- I-Sil Bite Registration
- I-Sil Jumbo Heavy Body for Vacu-Mixer
- I-Sil Jumbo Regular Body for Vacu-Mixer

Fast Set

- I-Sil Light Body Fast
- I-Sil Heavy Body Fast

Accessories

- Mixing Tip Yellow
- Mixing Tip Green
- Mixing Tip for Vacu-Mixer

Devices

- Impression dispenser
- Vacu-Mixer (Automatic Mixing Unit)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42권 제1호 통권 47호 2023년

- 세계 치과 명화 여행 : 일본 우키요에(Ukiyo-e)
 - 권 훈
- 카자흐스탄 우샤랄-일리발릭(Usharal-Ilibalyk) 고고학 발굴
 - 이병연
- 피에르 포샤르의 삶(Life of Pierre Fauchard)
 - 김태홍